

삼성 KPMG

# Samjong INSIGHT

Vol. 61 · 2018  
삼성KPMG 경제연구원

M&A로 본 화학 산업  
(2013~2017년)

Thought Leadership I  
M&A 통계로 본 화학 산업

Thought Leadership II  
M&A 사례로 본 화학 산업



## M&A로 본 화학 산업 (2013~2017년)

### Executive Summary

### Thought Leadership I

#### M&A 통계로 본 화학 산업

글로벌 화학 산업 M&A 동향 .....	2
화학 산업 Cross-border M&A 동향 .....	3
화학 산업 업종 간 M&A 동향 .....	4
주요국 화학 산업 M&A 동향 .....	7
통계로 본 화학 산업 M&A 트렌드 .....	10

### Thought Leadership II

#### M&A 사례로 본 화학 산업

2013~2017년 화학 산업 Mega deal .....	12
글로벌 주요 화학 기업의 M&A 동향 .....	14
사례로 본 화학 산업 M&A 트렌드 .....	25

## Contact us

임두빈 책임연구원	doobeenyim@kr.kpmg.com	02-2112-7469
장진영 선임연구원	jinyoungchang@kr.kpmg.com	02-2112-7095
엄이슬 선임연구원	yeom@kr.kpmg.com	02-2112-3918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 Executive Summary

세일 혁명으로 초래된 화학원료의 다변화, 4차 산업혁명과 전방산업의 수요 변화, 바이오 시장 선점 경쟁,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으로 화학 산업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 업계는 M&A를 신성장 동력 발굴과 함께 사업구조 재편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13~2017년 화학 산업 M&A 분석을 통해 기업들의 전략 방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한다.

02



### Thought Leadership I

#### M&A 통계로 본 화학 산업

- 2017년 화학 산업의 M&A 결과를 보면 공개된 거래액 기준으로 1,127억 달러를 기록해 규모면에서는 전년대비 감소한 모습을 보였으나 거래건수는 864건으로 지난 10년간 사상 최대치를 기록
- 화학 산업과 타 산업 간의 M&A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전체 화학 관련 M&A에서 그 비중이 77.1%에 달함. 이 중 최근 화학 기업들과 활발한 융합을 보이는 업종은 제약, 농업, 건설소재, 정보통신 분야임
- 화학 산업 동종 간 기업인수 동향을 보면 스페셜티, 농화학, 코팅·페인트 분야는 2013~2017년 기간 동안 각각 연평균 5.9%, 6.0%, 6.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임. 반면 플라스틱, 화학섬유, 합성고무 및 기초 유분 등 범용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업계 내 인수는 모두 연평균 두자리 수 감소세를 기록

12



### Thought Leadership II

#### M&A 사례로 본 화학 산업

- 화학 산업 M&A 트렌드 : ① 비석유화학 분야의 규모화 및 과점화, ② M&A를 활용한 사업구조의 재편, ③ 경량화 및 전자 소재 사업 확대 ④ 화학원료의 다변화, ⑤ 석유메이저들의 석유화학사업 강화
- 바스프 : 농화학·건설소재 강화, 전자·3D 프린팅 사업 진출
- 다우듀폰 : 농화학 및 소재과학 기업으로 사업 재편
- 시노펙 : 해외 정유사업 확대 및 석유화학사업 강화
- 사빅 : 경량화 소재 사업 확대 및 농화학 분야 진출 모색
- 엑슨모빌 : 자원 확보 재개와 천연가스·석유화학사업 강화
- 리온델바젤 : 차량용 화학소재와 바이오 연료 주목
- 이네오스 : 세일가스와 풍력 등 비전통 에너지원에 주목
- 미쓰비시케미칼 : 스페셜티 제품과 생명과학 분야 강화

# Thought Leadership I

## M&A 통계로 본 화학 산업



### 글로벌 화학 산업 M&A 동향

“ 2017년 화학 산업 M&A 거래건수는 864건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 ”

### 2017년 화학 산업 M&A, 최근 10년 내 최대 거래건수 기록

2017년 화학 산업의 M&A 결과를 보면 공개된 거래액 기준으로 1,127억 달러를 기록해 규모면에서는 전년대비 감소한 모습을 보였으나 거래건수는 864건으로 지난 10년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4년 유가 급락 이후 원재료 가격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화학 기업들은 사업 확장을 위해 3~5년이 소요되는 신증설보다는 기존 설비를 보유한 기업을 사고 파는 M&A 전략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석유화학 업계의 호황국면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현금보유력이 증가한 것도 M&A의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도래의 핵심 전제조건으로서 ‘화학소재의 고도화’가 요구되면서 스페셜티 제품군에 대한 화학업계의 사업 다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화학 산업의 M&A를 증가시키는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학 업계가 바이오·에너지 등 유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꾸준히 발굴하고 있다는 점도 화학 산업의 M&A를 활성화 시킨 주요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글로벌 화학 산업 M&A 거래건수 및 거래액



Source : Bloomberg,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 화학 산업 Cross-border M&A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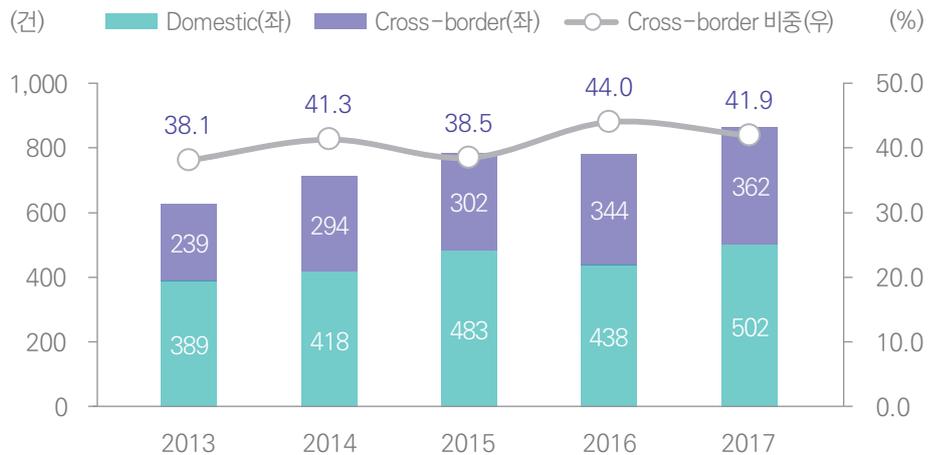
2017년 화학 산업  
Cross-border M&A  
거래건수 비중은 41.9%

”

### 자국 내 M&A 비중 높지만 건당 거래액은 Cross-border가 우위

화학 산업에서 자국 내 M&A 거래건수는 최근 5년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지만 Cross-border M&A 거래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362건을 기록했다. 다만 2017년 자국 내 M&A 거래건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Cross-border M&A 비중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41.9%를 나타내고 있다.

#### 》 화학 산업 자국 내 vs Cross-border M&A 거래건수 추이



Source :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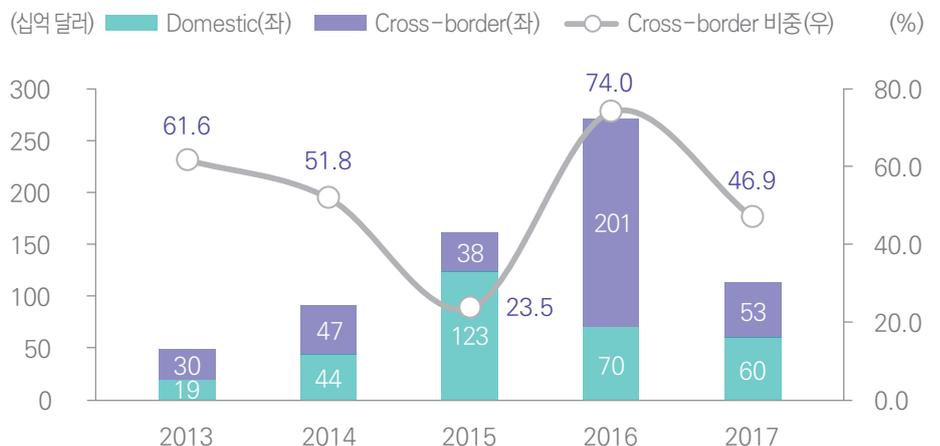
전체 거래액 기준으로도 2017년 Cross-border M&A는 528억 달러로 동기간 자국 내 M&A 거래액인 598억 달러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A 건당 평균 거래액으로 보면 Cross-border M&A가 1억 4,596만 달러, 자국 내 M&A가 1억 1,920만 달러로 Cross-border M&A의 건당 평균 거래액이 자국 내 M&A 거래액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Cross-border M&A의  
건당 평균 거래액이  
자국내 M&A보다 높아

”

#### 》 화학 산업 자국 내 vs Cross-border M&A 거래액 추이



Source :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 화학 산업 업종 간 M&A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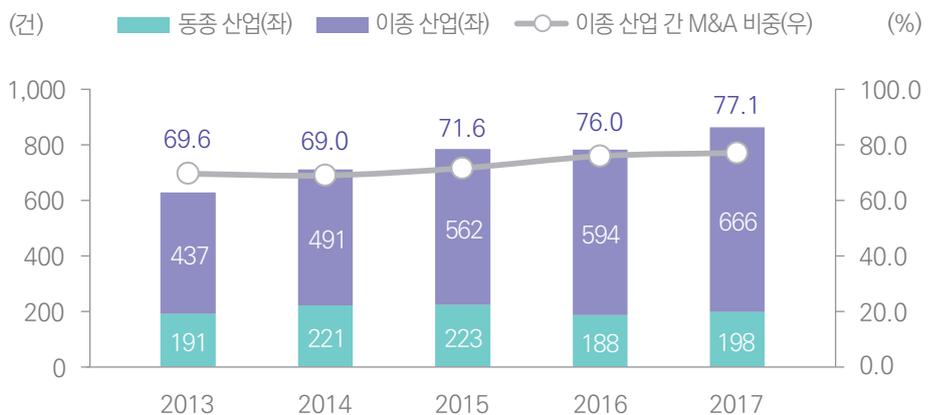
2017년 화학 산업과 이종 산업의 M&A 거래건수 비중은 77.1%



### 화학 산업과 이종 산업 간 M&A는 지속적으로 증가

화학 산업과 관련된 M&A에서 화학 산업과 이종 산업 간 M&A 거래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7년 화학 산업과 이종 산업 간 M&A 거래건수는 666건으로 전체 M&A 거래건수 중 77.1%의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2014년 이후 이종 산업과의 M&A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화학 시장에서 이종 산업 간 융합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 》 화학 동종 산업 vs 이종 산업 M&A 거래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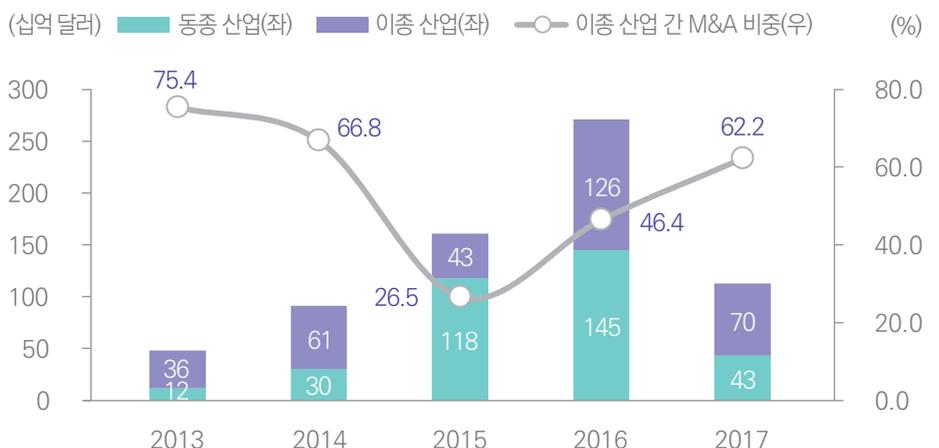


Source :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2017년 화학 산업 M&A 전체 거래액 기준으로 이종 산업 간 M&A가 701억 달러로 화학 동종 산업 간 M&A(426억 달러)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건당 평균 거래액으로 보면 동종 산업 간 M&A가 2억 1,507만 달러, 이종 산업 간 M&A가 1억 525만 달러로 동종 간 M&A의 건당 거래액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 화학 동종 산업 vs 이종 산업 M&A 거래액 추이



Source :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동종 산업 간 M&A의 건당 평균 거래액이 이종 산업 간 M&A보다 높아 ”

“

제약, 농업, 건설소재,  
IT와의 융합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모색

”

## 바이오, 건설소재, IT 등 이종 기술에 주목하는 화학 기업들

2017년 화학 기업이 인수한 피인수기업(Target)의 상위 10개 업종 동향을 살펴보면, 동종 업종인 화학 업종을 인수한 경우가 198건으로 가장 많지만 2013~2017년 기간 동안의 연평균증가율은 0.9%에 머물러 타업종 대비 비교적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반면 화학 기업이 인수한 피인수기업 업종 중 양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증가를 보인 업종은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2013년 거래건수는 25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54건을 기록했다. 또한 2013~2017년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연평균증가율을 기록한 피인수 업종은 건설소재 업종(45.6%)으로, 건축구조물의 고층화, 대형화, 첨단화에 따라 고강도화나 고내구성 및 특별한 기능을 요구하는 건설용 화학소재 개발이 주목 받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화학 기업의 정보통신 기업 인수도 동기간 연평균증가율 29.7%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초연결성을 가능하게 하는 각종 센서에 화학 기술들이 접목되고, 생산 측면에서도 화학 공정에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기업들이 화학-IT산업의 융합을 점차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화학 기업을 인수한 인수기업(Acquirer) 업종의 경우 동종인 화학을 제외하고 금융 및 투자기업들이 8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투자기업들이 여전히 화학 산업을 수익성이 높은 성장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농업과 관련된 기업들의 화학 기업 인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3년 농업 기업들의 화학 기업 인수는 5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1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인구증가 및 경작지 면적 감소로 농업 분야에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등 종자 기술과 각종 작물 보호제 등이 그린바이오(Green Biotechnology) 분야로 각광받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M&A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 화학 관련 기업이 인수한 업종 Top 10

(건)

2017 순위	피인수 기업업종	2013	2014	2015	2016	2017	CAGR
1	화학	191	221	223	188	198	0.9%
2	제약·바이오	25	29	30	34	54	21.2%
3	자원·에너지	29	29	30	35	35	4.8%
4	금융·투자	10	8	13	13	22	21.8%
5	건설소재	4	13	7	9	18	45.6%
6	정보통신	6	7	14	9	17	29.7%
7	전기전자	8	11	12	20	14	15.0%
8	식품료	10	13	15	17	12	4.7%
9	농업	9	13	13	19	11	5.1%
10	기계장비	5	6	16	7	10	18.9%

### 》 화학 관련 기업을 인수한 업종 Top 10

(건)

2017 순위	인수 기업업종	2013	2014	2015	2016	2017	CAGR
1	화학	191	221	223	188	198	0.9%
2	금융·투자	56	76	65	67	87	11.6%
3	자원·에너지	18	23	22	30	22	5.1%
4	농업	5	10	23	13	18	37.7%
5	제약·바이오	14	11	14	14	16	3.4%
6	건설소재	4	5	11	9	12	31.6%
7	전기전자	6	7	6	5	10	13.6%
7	저장·운송	2	4	8	4	10	49.5%
9	기계장비	2	7	4	3	6	31.6%
9	가정용품	1	2	2	1	6	56.5%

Source : Bloomberg,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1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Note 2 : CAGR은 2013~2017년 거래건수의 연평균증가률

“ 화학 산업 내에서 범용 석유화학 기업들의 피인수는 축소되고 스페셜티, 농화학 분야는 확대 ”

### 동종 산업 내에서는 스페셜티, 농화학, 코팅/페인트 분야 강화

화학 산업 동종 간 M&A 동향을 살펴보면, 화학 기업들이 스페셜티 제품을 생산하는 화학 기업을 인수한 건수가 54건으로 종합화학 기업(46건)을 제치고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농화학, 코팅/페인트 업종의 피인수 건수도 2013~2017년 기간 동안 연평균 6%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화학 기업들이 종합화학 기업을 인수한 경우는 연평균증가율이 -4.8%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기초석유화학, 플라스틱, 화학섬유, 합성고무 등 범용 제품 생산 업종에 대한 화학 기업들의 인수도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범용 석유화학 제품 분야에서 중국의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ASEAN) 국가들은 내수 성장에 따라 범용 석유화학 산업을 새로운 성장기반으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중동시장은 풍부한 공급원료를 앞세운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생산능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확산에 따라 에너지 분야에서 탈석유화가 진행되면서 기존 거대 에너지 기업들도 원유의 생산 및 정제 중심에서 벗어나 석유화학 산업으로 사업을 다각화 하는 추세이다. 이렇듯 중국, 아세안, 중동 국가들 뿐만 아니라 석유 메이저 기업들의 석유화학 진출에 따라 범용 제품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기존 화학 산업의 주요국들은 M&A를 통해 고부가 스페셜티, 농화학 분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화학 기업이 인수한 동종 산업 내 세부 업종

(건)

2017 순위	화학 피인수 기업업종	2013	2014	2015	2016	2017	CAGR
1	스페셜티	43	43	49	41	54	5.9%
2	종합화학	56	51	60	34	46	-4.8%
3	농화학	19	27	22	30	24	6.0%
4	코팅/페인트	18	17	13	34	23	6.3%
5	범용플라스틱	11	17	11	8	7	-10.7%
6	산업용가스	7	14	8	4	3	-19.1%
6	기초석유화학	7	6	6	3	3	-19.1%
8	화학섬유	5	9	7	1	2	-20.5%
9	합성고무	4	1	2	2	0	-100.0%
-	기타	21	36	45	31	36	14.4%
합 계		191	221	223	188	198	0.9%

Source :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Note 2 : CAGR은 2013~2017년 거래건수의 연평균증감률

## 주요국 화학 산업 M&A 동향



2017년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참여한 M&A 건수가 전체 거래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



### 화학 산업의 M&A, 미국과 중국이 주도

2017년 화학 산업 M&A 중 미국 기업이 참여한 M&A 거래건수가 2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기업이 175건, 일본 기업이 78건, 독일 기업이 71건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화학 강국으로 평가 받는 우리나라의 2017년 거래건수는 49건으로 전체 6위의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화학 산업 M&A 거래건수 상위 10개 국가 중 2013~2017년 기간 동안 연평균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로 26.2%를 기록했고, 네덜란드의 경우도 18.9%의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2013년 75건의 M&A 거래건수를 기록한 일본의 경우 2017년 78건에 머물러 상위 10개국 중 가장 낮은 1.0%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였다.

거래액의 경우 메가 딜(Mega deal)의 성사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가별 시계열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당해년도 해당국가의 M&A 거래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2017년 거래액 기준 상위 10개 국가 중 100억 달러 이상의 거래액을 기록한 국가는 미국, 네덜란드, 중국, 브라질, 독일이며 특히 미국 기업들이 참여한 M&A 거래액이 537억 달러로 주요국과 비교해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악조노벨(AkzoNobel)의 액솔타(Axalta) 인수 제안, 브라질의 경우 리온델바젤(LyondellBasell)의 브라스켄(Braskem) 인수 제안이 알려지면서 2017년 거래액이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2017년 화학 산업 M&A 거래액은 28억 달러로 전년대비 거래건수는 14건 증가했으나, 거래액은 10억 달러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국가별 화학 산업 M&A 거래건수

(건)

2017 순위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CAGR
1	미국	187	260	286	278	283	10.9%
2	중국	124	118	122	149	175	9.0%
3	일본	75	73	79	96	78	1.0%
4	독일	51	82	71	72	71	8.6%
5	영국	41	44	50	46	59	9.5%
6	한국	35	38	53	35	49	8.8%
7	프랑스	38	32	34	42	45	4.3%
8	캐나다	27	34	38	39	42	11.7%
9	인도	15	30	46	48	38	26.2%
10	네덜란드	18	19	20	26	36	18.9%

### 주요 국가별 화학 산업 M&A 거래액

(백만 달러)

2017 순위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CAGR
1	미국	17,349	53,220	117,297	155,059	53,736	32.7%
2	네덜란드	10,553	364	3,983	1,185	25,053	24.1%
3	중국	6,338	16,663	21,619	71,372	22,366	37.1%
4	브라질	1,363	870	24	3,271	12,932	75.5%
5	독일	6,265	24,733	1,589	125,158	11,529	16.5%
6	일본	2,985	7,180	3,985	7,678	3,512	4.1%
7	캐나다	976	527	502	20,523	3,487	37.5%
8	이스라엘	-	-	443	4,302	3,476	-
9	사우디	-	243	-	1,359	3,475	-
10	프랑스	2,615	4,428	13,771	7,050	3,184	5.0%
11	한국	2,425	4,706	5,762	3,837	2,830	3.9%

Source :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Note 2 : CAGR은 2013~2017년 거래건수와 거래액의 연평균증가율

Note 3 : 거래건수와 거래액은 해당국가에 속한 기업들의 인수와 피인수 거래의 합집합(인수 거래+피인수 거래-자국 내 거래(중복))

“  
2017년 한국 기업의  
인수 건수 45건,  
전년대비 67% 증가  
”

### 2017년 한국 기업들의 인수 건수, 전년대비 크게 증가

2013~2017년 화학 산업의 M&A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로 동 기간 인수 건수는 순위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1~4위를 유지하고 있다. 해당 국가들은 2017년 대부분 전년대비 인수 건수가 증가했으나, 일본은 87건에서 76건으로 전년대비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주요 4개국(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비해 거래건수는 적지만 2017년 상위 10개 인수국으로서 2013~2017년 기간 동안 높은 증가율을 보인 국가는 인도(26.8%), 스위스(16.6%) 등이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인도나 스위스에 비해 연평균증가율이 높지는 않지만 2017년 인수 건수가 45건으로 상위 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전년의 27건 대비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2017년 주요 국가의 피인수 건수를 보면 역시 미국 기업이 21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뒤를 중국 기업이 158건으로 뒤따르고 있다. 인수 건수와는 다르게 피인수 건수는 2017년 한국 기업이 일본과 독일 기업들을 제치고 43건으로 3위를 기록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일본 기업의 피인수 건수는 2013~2017년 기간 동안 연평균증가율 -2.4%로 2017년 피인수 건수 상위 10개국 중 유일하게 연평균증가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2013~2017년 기간 동안 화학 산업 M&A 피인수 건수 상위 10개국 중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국가는 인도(22.0%), 이탈리아(16.4%), 중국(9.5%)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최근 인수 기업들이 화학 산업에서 해당 국가의 기업들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 》 주요 국가별 화학 산업 M&A 인수 건수

(건)

2017 순위	인수국	2013	2014	2015	2016	2017	CAGR
1	미국	140	214	227	200	210	10.7%
2	중국	114	102	112	129	158	8.5%
3	일본	73	68	77	87	76	1.0%
4	독일	33	53	48	43	48	9.8%
5	한국	31	34	48	27	45	9.8%
6	프랑스	27	21	22	29	33	5.1%
7	인도	12	21	32	41	31	26.8%
8	영국	21	23	26	22	30	9.3%
9	캐나다	18	22	21	25	26	9.6%
10	스위스	13	15	18	18	24	16.6%

#### 》 주요 국가별 화학 산업 M&A 피인수 건수

(건)

2017 순위	피인수국	2013	2014	2015	2016	2017	CAGR
1	미국	153	187	217	199	216	9.0%
2	중국	110	111	111	125	158	9.5%
3	한국	33	32	49	33	43	6.8%
4	일본	44	45	48	57	40	-2.4%
5	영국	27	31	33	33	38	8.9%
6	독일	29	42	31	34	32	2.5%
7	인도	14	23	40	39	31	22.0%
8	캐나다	19	26	30	27	26	8.2%
9	프랑스	19	18	18	20	22	3.7%
9	이탈리아	12	13	14	14	22	16.4%

Source : Bloomberg,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1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Note 2 : CAGR은 2013-2017년 인수(피인수) 건수 연평균증가율

## Cross-border M&A 비중이 높은 유럽 기업들

2017년 화학 산업 M&A에서 Cross-border 인수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67건을 기록했으며, 2013~2017년 기간 동안 연평균증가율은 18.5%로 다른 주요국과 비교할 때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의 전체 인수 건수에서 Cross-border 인수 비중은 32%로 상위 10개국 중 비교적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독일의 Cross-border 인수 건수는 39건으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는데 전체 인수 건수 대비 Cross-border 비중은 81%로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 Cross-border 인수 건수가 17건으로 전체 7위를 기록했으나, 전체 인수 건수 대비 비중은 11%로 Cross-border 인수 건수 상위 1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국의 2017년 Cross-border 인수 건수는 6건으로 화학 산업 주요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전체 인수 건수 대비 비중도 13%에 그쳤다. 반면 일본의 경우 2017년 Cross-border 인수 비중이 50%에 이르러 아시아 주요국 중 상대적으로 Cross-border 인수 거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Cross-border 거래를 통한 피인수 기업이 가장 많은 국가는 역시 미국으로 73건을 기록했으며, 그 뒤로 영국(29건)과 독일(23건) 순이다. 상위 10개국 중 2013~2017년 기간 동안 Cross-border 피인수 건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국가는 네덜란드로 연평균 25.7% 증가했으며, 브라질과 이탈리아의 경우도 각각 23.0%, 20.5%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중국을 제외하고 아시아 국가들은 Cross-border 피인수 건수 상위 10개국 순위에 오르지 못했으며, 한국의 2017년 Cross-border 피인수 건수는 4건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일본의 경우 비교적 높은 Cross-border 인수 건수에도 불구하고 2017년 Cross-border 피인수 건수는 단 2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기업의 Cross-border  
인수 활발, 한국과 중국은  
10%대 비중으로  
낮은 수준 ”

### 주요국 Cross-border M&A 인수 건수

(건, %)

2017 순위	인수국	2013		2014		2015		2016		2017		CAGR
		건수	비중									
1	미국	34	24	73	34	69	30	79	40	67	32	18.5%
2	독일	22	67	40	75	40	83	38	88	39	81	15.4%
3	일본	31	42	28	41	31	40	39	45	38	50	5.2%
4	프랑스	19	70	14	67	16	73	22	76	23	70	4.9%
5	영국	14	67	13	57	17	65	13	59	21	70	10.7%
6	스위스	12	92	13	87	16	89	16	89	19	79	12.2%
7	중국	14	12	7	7	11	10	24	19	17	11	5.0%
8	캐나다	8	44	8	36	8	38	12	48	16	62	18.9%
9	네덜란드	11	92	11	79	10	83	11	85	14	67	6.2%
10	벨기에	6	86	9	82	8	62	6	86	10	91	13.6%
15	한국	2	6	6	18	4	8	2	7	6	13	31.6%

### 주요국 Cross-border M&A 피인수 건수

(건, %)

2017 순위	피인수국	2013		2014		2015		2016		2017		CAGR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1	미국	47	31	46	25	59	27	78	39	73	34	11.6%
2	영국	20	74	21	68	24	73	24	73	29	76	9.7%
3	독일	18	62	29	69	23	74	29	85	23	72	6.3%
4	이탈리아	9	75	7	54	11	79	10	71	19	86	20.5%
5	중국	10	9	16	14	10	9	20	16	17	11	14.2%
6	브라질	7	50	12	86	14	74	15	75	16	76	23.0%
6	캐나다	9	47	12	46	17	57	14	52	16	62	15.5%
8	네덜란드	6	86	5	63	8	80	13	87	15	68	25.7%
9	프랑스	11	58	11	61	12	67	13	65	12	55	2.2%
10	홍콩	5	71	5	100	5	50	7	50	8	80	12.5%
21	한국	4	12	4	13	5	10	8	24	4	9	0.0%

Source : Bloomberg,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1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Note 3 : 비중은 당해년도 해당국가의 전체 인수(피인수) 건수 중 Cross-border M&amp;A 비중

Note 2 : CAGR은 2013~2017년 Cross-border 인수(피인수) 건수의 연평균증가율

## 통계로 본 화학 산업 M&A 트렌드

“ M&A를 중장기적 사업구조 재편의 수단으로 활용 ”

### 산업 간 융합 및 사업 다각화로 미래를 준비하는 화학 산업

화학 산업은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일반적으로 화학 산업의 M&A는 초대형 거래 중심으로 생각하기 쉽다. 물론 여전히 화학 산업의 M&A에서는 초대형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 시장지배력을 갖춘 메이저 기업들 간의 합병이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2017년 들어 상대적으로 중소형 거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2017년 화학 산업 M&A 거래건수는 864건으로 2016년 782건 대비 10% 증가했고, 최근 10년 동안 사상 최대 거래건수를 기록했다. 반면 2017년 거래액의 경우 2016년의 40%, 2015년의 70%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화학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장지배력 강화 측면에서 한발 더 나아가 특정 사업부를 인수하여 사업을 다각화 하거나, 미래 유망 기술 기업을 선점하여 중장기적으로 육성할 사업방향을 설정하는 등 M&A를 사업재편 수단의 하나로 적극 활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산업 간 M&A와 화학 업계 내 M&A 동향을 살펴보면 화학 업계의 사업재편 트렌드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화학 산업과 타 산업 간의 M&A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전체 화학 관련 M&A에서 그 비중이 77.1%에 이르고 있다. 즉, 화학 산업은 이종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 중 최근 화학 기업들과 활발한 융합을 보이는 업종은 제약, 농업 등 바이오 분야와 건설소재, 정보통신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 산업과의 융합이 아닌 화학 업계 간 거래를 살펴보면 범용 제품의 사업 확장에서 벗어나 사업 다각화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화학 기업들 간 M&A는 2013년 191건에서 2017년 198건으로 연평균 0.9%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세부 화학 업종으로 살펴보면 스페셜티, 농화학, 코팅/페인트 분야에 대한 인수는 동기간 각각 연평균 5.9%, 6.0%, 6.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플라스틱, 화학섬유, 합성고무 및 기초 유분 등 범용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업계 내 인수는 모두 연평균 두자리 수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규모의 확장을 위한 종합화학 기업에 대한 인수도 동기간 연평균 -4.8%로 감소했다. 즉, 업계 내 거래에서도 이미 성장에 한계를 느끼는 범용화학 분야보다는 농화학 및 스페셜티 제품으로 사업을 다각화하여 미래 화학 시장에서의 새로운 경쟁을 대비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 Thought Leadership II

## M&A 사례로 본 화학 산업



### 2013~2017년 화학 산업 Mega deal

#### Mega deal, 주로 비석유화학분야에서 발생

2013~2017년 화학 산업 M&A 중 공개된 거래액 기준으로 상위 10위를 기록한 딜(deal)을 살펴 보면 현재 제안 단계인 거래가 2건, 완료된 거래가 6건, 진행 중인 거래가 2건으로 파악되었다. 동 기간 거래 규모가 가장 큰 딜은 2016년 독일 제약 기업으로 유명한 바이엘이 세계 최대 종자 회사이자 GMO 시장점유율 1위인 미국 농화학 기업 몬산토 인수를 발표한 건으로 동 건은 2018년 3월 EU 경쟁 당국의 승인을 통과했다.

#### » 2013~2017년 화학 산업의 상위 10대 M&A 거래

■ 최종 인수(제안) 기업(Ultimate Bidder Name)      ■ 인수 대상 기업(Ultimate Target Name)  
 ■ 제안(Proposed)      ■ 진행 중(Pending)      ■ 완료(Completed)

'16. 5. 18	Bayer Monsanto	\$65,696(백만 달러)
'15. 12. 11	DowDuPont Dow chemical/DuPont	\$65,603(백만 달러)
'16. 2. 3	China National Chemical Corp(ChemChina) Syngenta	\$46,312(백만 달러)
'16. 12. 20	Praxair Linde	\$41,397(백만 달러)
'16. 9. 12	Nutrien Potash/Agrium	\$17,768(백만 달러)
'14. 9. 22	Merck Sigma-Aldrich	\$16,395(백만 달러)
'17. 12. 1	Akzo Nobel Axalta Coating Systems	\$14,034(백만 달러)
'15. 11. 17	Air Liquide Airgas	\$13,247(백만 달러)
'16. 3. 20	Sherwin-William Valspar	\$11,206(백만 달러)
'17. 3. 9	Potential Buyer Akzo's specialty chemicals business/Akzo Nobel	\$10,580(백만 달러)

Source :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  
초대형 M&A를 통해  
과점화가 진행 중인  
종자 및 작물 보호제 시장  
”

바이엘은 경쟁 당국의 승인을 위해 2017년 종자, 제초사업부를 바스프에 매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엘의 몬산토 인수는 기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제약부문과 함께 농업 부문을 보다 확대하여 미래 바이오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기업 전략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13~2017년 기간 동안 완료된 거래 중 가장 큰 규모의 딜은 다우케미칼과 듀폰이 2015년 공시한 합병 건이다. 해당 거래는 2017년 합병이 완료되었고, 합병기업의 명칭은 다우듀폰(DowDuPont)으로 확정되었다. 다우듀폰은 향후 핵심 사업을 농업, 소재과학, 특수제품으로 재편하고 각 사업별 신설 법인을 설립할 계획에 있다.

거래액 기준 3위에 해당하는 딜도 농화학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6년 중국 국영 화학 기업 켄차이나가 세계 최대 농약 생산업체 신젠타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는데 2017년 6월 인수를 완료했다. 켄차이나는 자사의 판매망을 이용해 신흥국에서 신젠타의 농약과 종자 판매 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켄차이나의 신젠타 인수가 완료됨에 따라 글로벌 종자 및 농약 산업은 켄차이나, 다우듀폰, 몬산토 인수를 진행 중인 바이엘의 3강 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2013~2017년 거래액 기준 4위에 해당하는 딜은 산업용 가스 글로벌 2, 3위 업체인 독일의 린데와 미국의 프렉스에어가 2016년 합병을 공시한 건이다. 해당 거래는 독일과 미국의 규제 당국 승인이 진행 중이며, 2018년 하반기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용 가스는 전통적인 제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태양광, 디스플레이 등 성장 산업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후방산업인 산업용 가스의 수요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용 가스 시장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M&A가 활성화 되고 있는 양상이다. 실제로 린데와 프렉스에어의 합병은 프랑스의 글로벌 1위 산업용 가스 업체 에어리퀴드의 2015년 미국 에어가스 인수(2013~2017년 화학 산업 M&A 거래액 중 8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거래액 규모 5위에 해당하는 딜은 앞서 언급한 농화학 분야에 부는 M&A 바람과 방향을 같이한다. 2016년 캐나다의 글로벌 비료업체 포타시와 경쟁업체 아그리움은 동등합병에 합의했다고 공시했고, 2018년 1월 합병이 완료되면서 세계 최대의 비료업체인 뉴트리엔(Nutrien)이 탄생하게 된다.

생명과학 분야와 관련된 인수합병도 2013~2017년 화학 산업의 메가 딜 상위 순위를 차지했다. 2014년 제약회사로 유명한 머크는 실험실용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제, 시약 등을 생산하는 생명공학 기업인 시그마-알드리치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고, 2015년 해당 거래가 완료되었다. 이외에도 미국 최대의 페인트 업체 셔윈이 경쟁사인 발스파 인수를 완료한 거래와(2016년 공시, 2017년 완료) 2017년 약조노벨이 미국 자동차 페인트 기업인 엑솔타 코팅시스템스에 인수 제안을 한 건, 약조노벨의 스페셜티 사업부문 매각 추진 등이 2013~2017년 화학 산업 M&A 거래액 상위 10위 이내에 랭크 되었다.

2013~2017년 화학 산업의 메가 딜 동향을 요약하면, 전통적인 범용석유화학 분야가 아닌 농화학 분야가 주도하는 가운데, 생명공학, 산업용 가스, 스페셜티 제품군 등에 대형 M&A의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글로벌 주요 화학 기업의 M&A 동향

“ 최근 활발하게 M&A를 추진하는 글로벌 화학 기업들은 바스프, 이네오스, 미쓰비시케미칼 ”

### M&A 시장에서 글로벌 종합화학 업체들은 어떤 기업에 주목했는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화학 산업의 메가 딜은 주로 비석유분야에서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화학 산업의 강자들은 동 기간 어떤 기업에 주목했을까?

본 절에서는 매출액 기준 글로벌 상위 종합화학 기업들의 2013~2017년 기업인수 동향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 ACS)가 발행하는 C&EN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매출액 상위 10대 화학 기업은 바스프(독일), 다우케미칼(미국), 시노펙(중국), 사빅(사우디), 포모사플라스틱(대만), 엑슨모빌(미국), 리온델바젤(네덜란드), 이네오스(스위스), 미쓰비시케미칼(일본), 듀폰(미국)으로 파악된다. 이 중 다우케미칼과 듀폰은 2017년 9월 합병을 완료하여 다우듀폰으로 재편되었다.

글로벌 매출액 기준 상위 10대 화학 기업 중 2013~2017년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인수거래를 진행한 기업은 미쓰비시케미칼로 총 21건을 기록했으며, 그 뒤로 이네오스(20건), 바스프(16건) 등이 활발하게 M&A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빅과 리온델바젤은 동 기간 기업 인수 건수가 3건으로 상대적으로 경쟁사 대비 M&A 활동이 저조한 모습을 보였고, 포모사플라스틱의 경우 인수거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매출액 기준 화학업체 순위 및 2013~2017년 M&A 추진 건수

(백만 달러, 건)

매출액 순위 (2016년 기준)	기업명	본사위치	2016년 매출액	M&A 인수건수 (2013~2017년)
1	바스프(BASF)	독일	60,653	16
2	다우케미칼(Dow Chemical)	미국	48,158	9
3	시노펙(Sinopec)	중국	42,815	6
4	사빅(SABIC)	사우디	30,985	3
5	포모사플라스틱(Formosa Plastics)	대만	27,141	0
6	엑슨모빌(ExxonMobil)	미국	26,058	10
7	리온델바젤(LyondellBasell)	네덜란드	24,624	3
8	이네오스(Ineos)	스위스	23,530	20
9	미쓰비시케미칼(Mitsubishi Chemical)	일본	23,358	21
10	듀폰(DuPont)	미국	19,679	2

Source : C&EN, Bloomberg,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1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Note 2 : 다우케미칼과 듀폰은 2017년 9월 합병 완료로 다우듀폰(DWDP)으로 지주사 설립

“

농화학, 건설소재,  
전자소재 등 비전통  
석유화학 분야를 강화

”

## 바스프(BASF), 농화학·건설소재 강화, 전자·3D 프린팅 사업 진출

수년간 글로벌 화학 기업 순위에서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바스프는 M&A를 통해 끊임없이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7년에는 6건의 인수거래가 진행 또는 완료 되어 매출 기준 상위 10대 화학 기업 중 가장 많은 M&A를 진행했다.

2017년 바스프의 주요 M&A를 살펴보면 먼저 2017년 2월 스위스의 롤릭(Rolic)을 인수했는데, 롤릭은 LCD 및 OLED 디스플레이의 명암 및 밝기를 향상하는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스프는 롤릭 인수를 통해 차세대 LCD 및 OLED 디스플레이 소재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바스프의 사업영역이 전자 산업으로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바스프는 2017년 4월 멕시코의 서모텍(Thermotek)을 인수하여 건설 화학 부분을 강화한다. 서모텍은 멕시코에서 건설 부문 방수 시스템 분야의 선두 주자로 알려져 있다.

### 》 2013~2017년 바스프의 기업 인수 현황

공시 연도	피인수 기업명	피인수 기업 국가	진행상황	업종	비고(사업영역 등)
2017	DEA Deutsche Erdoel AG	러시아	제안	자원·에너지	석유 및 가스 생산
2017	Cottonseed business / Bayer AG	독일	진행	화학	종자 및 비선택성 제초제
2017	Polyamides business / Solvay SA	프랑스	진행	화학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2017	Innofil3D BV	네덜란드	완료	화학	3D 프린팅 필라멘트
2017	Grupo Thermotek	멕시코	완료	화학	방수 시스템
2017	Rolic AG	스위스	완료	전자	디스플레이 및 광학제품용 소재
2016	Flooring, Tiling and Waterproofing business / Henkel Corp	독일	진행	건설소재	바닥재, 타일, 방수 등
2016	Chemetall GmbH	미국	완료	화학	코팅, 표면처리
2016	Guangdong Yinfan Chemistry automotive refinish coa / Guangdong Yinfan Chemical Co Ltd	중국	완료	화학	자동차용 도료 및 코팅
2015	Aguada Federal block / Gas y Petroleo del Neuquen SA	아르헨티나	완료	자원·에너지	세일자원 탐사
2015	Seashell's nanowire technology / Seashell Technology LLC	미국	완료	화학	은나노와이어
2014	Taiwan Sheen Soon Co Ltd	대만	완료	화학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2014	Statoil's oil & gas assets in Norway / Statoil ASA	노르웨이	완료	자원·에너지	석유 및 가스 생산
2014	PU business activities / Polioles SA de CV	멕시코	완료	화학	폴리우레탄
2013	Verenium Corp	미국	완료	바이오	효소, 생명공학
2013	Deutsche Nanoschicht GmbH	독일	완료	반도체	박막, 초전도 기술

Source : Bloomberg, 국내의 언론기사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 3D 프린팅 시장을 준비하는 바스프 ”

바스프는 2017년 8월 다시 기업 인수에 나서는데 3D 프린팅 관련 기업인 이노필3D(Innofil3D)를 인수한다. 이노필3D는 FFF방식 3D프린터용 필라멘트 제조사로 이미 전 세계 유통채널을 확보하고 있으며, PLA, PET, PVA, ABS 등 다양한 필라멘트를 제조, 공급해오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프린팅 속도를 80%까지 높일 수 있는 PRO1 필라멘트를 출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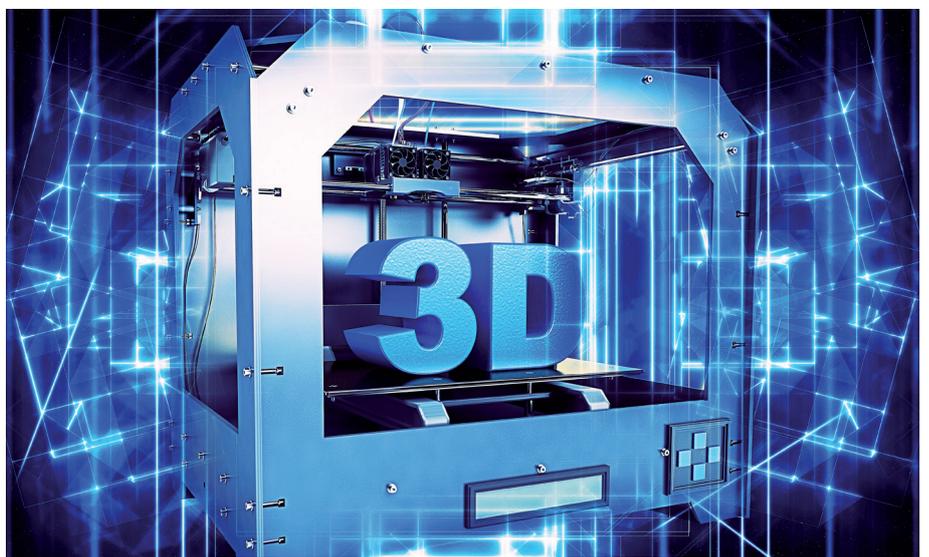
3D 프린팅은 미래 제조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전방 제조 산업에 3D 프린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후방의 화학소재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3D 프린팅은 기존 화학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신사업 영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바스프는 이노필3D 인수 이후 3D 프린팅 사업 진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바스프는 2017년 9월 3D 프린터용 소재를 전문으로 다루는 'BASF 3D Printing Solutions'라는 자회사를 설립한다. 바스프는 자동차, 항공우주 및 소비재 업계를 주요 고객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독립 조직을 통해 급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바스프는 고기능성 스페셜티 소재에 대한 사업영역도 M&A를 통해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바스프는 2017년 9월 벨기에에 본사를 둔 정밀화학기업 솔베이(Solvay)의 폴리아미드(Polyamide) 사업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바스프는 해당 인수로 폴리아미드를 활용한 직물사업과 튜브피팅, 냉각팬, 엔진공기덕트 등 산업용 부품에 사용되는 내열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업에서 입지를 강화할 전략이다.

바스프는 글로벌 메가 딜의 주요 트렌드인 농화학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7년 10월 바스프는 바이엘의 종자 및 비선택성 제초제 사업 대부분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바이엘의 해당 사업부문 매각은 몬산토 인수 과정에서 반독점 규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거래로 바스프는 기존 작물보호제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강화되고 전매 자산을 확보해 주요 농업 시장의 종자사업에 진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바스프는 기존 석유 및 가스 사업부문에서도 영향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2017년 11월 바스프는 레터원(LetterOne) 그룹과 함께 윈터셸DEA(Wintershall DEA)라는 조인트 벤처를 구성해 각사의 석유 및 가스 사업을 합병할 계획이다. 이 신생 기업은 높은 성장 전망을 보이는 유럽 최대 독립 탐사 및 생산 회사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이네오스(INEOS), 세일가스와 풍력 등 비전통 에너지원에 주목

“ 비전통 자원과 신재생에너지 등 포스트 오일을 준비하는 이네오스 ”

2013~2017년 기간 동안 20여 건의 인수거래를 진행한 이네오스는 M&A를 통해 전통적인 석유 화학 분야를 강화하고 자원 탐사 및 에너지 관련 사업 확대를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네오스는 2014~2015년 기간 동안 세일가스 탐사 면허와 천연가스전을 공격적으로 확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16년 기간에는 범용석유화학 관련 기업 및 사업부문 인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이 기간 이네오스는 우리나라의 대림산업과 세브론필립스케미칼의 합작회사인 케이알 코폴리머(KR Copolymer)를 인수하기도 했다.

이후 이네오스는 2017년 들어 다시 세일가스전 및 자원 탐사 기업들을 인수하고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로의 사업 확대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네오스는 화학제품 생산시 장기적으로 세일가스에서 추출한 에탄의 비중을 높여갈 것으로 전망되며, 에너지 분야에서도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2013~2017년 이네오스의 기업 인수 현황

공시 연도	피인수 기업명	피인수 기업 국가	진행 상황	업종	비고(사업영역 등)
2017	FC Lausanne-Sport	스위스	진행	스포츠	축구 클럽
2017	Belstaff Group SA	오스트리아	완료	의류	패션
2017	Oil & gas operations / Dong Energy A/S	덴마크	완료	자원·에너지	풍력 발전
2017	Forties pipeline & Kinneil Terminal / BP PLC	영국	완료	자원·에너지	자원 탐사 및 생산
2017	Onshore Petroleum / Engie SA	영국	완료	자원·에너지	세일가스 탐사
2016	WLP Holding Corp	미국	완료	건설소재	폴리에틸렌(HDPE) 파이프
2016	KR Copolymer Co Ltd / Daelim Industrial Co Ltd, Chevron Phillips Chemical Co LLC	한국	완료	화학	스티렌-부타디엔계 합성수지
2016	Calabrian Corp	미국	완료	화학	이산화황 및 나트륨 기반 파생상품
2016	n-Butyl Acetate Business / Celanese Corp	미국	진행	화학	아세트산부틸
2016	Inovyn Ltd / Solvay SA	영국	완료	화학	석유 화학 물질
2015	Fairfield Acer Ltd, Fairfield Cedrus Ltd / Fairfield Energy Ltd	영국	완료	자원·에너지	북해 천연가스전
2015	Breagh & Clipper South Gas Fields / DEA Deutsche Erdoel AG	독일	완료	자원·에너지	북해 천연가스전
2015	Aromatics Division & Pasadena Manufacturing Facility / Axiall Corp	미국	완료	화학	방향족 사업부 및 쿠멘(cumene) 생산공장
2015	Licences PEDLs 133-145-193 & EXL 273/ IGas Energy PLC	영국	완료	자원·에너지	세일가스 탐사
2014	PEDL 162 License / Scotland / Reach Coal Seam Gas Ltd	영국	진행	자원·에너지	세일가스 탐사
2014	Grangemouth Chp Ltd / Fortum OYJ	핀란드	완료	화학	정제 시설
2014	PEDL 133 license / Scotland / BG Group Ltd	영국	완료	자원·에너지	세일가스 탐사
2014	Styrolution ABS Ltd	인도	진행	화학	열가소성 플라스틱
2014	Styrolution Holding GmbH / BASF SE	독일	완료	화학	스티레닉스
2013	Polyacrylonitriles Business / Mitsui Chemicals Inc	일본	완료	화학	폴리아크로니트릴

Source : Bloomberg, 국내외 언론기사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 미쓰비시케미칼(Mitsubishi Chemical), 스페셜티 제품과 생명과학 분야 강화

“  
 재생의료 등 차세대  
 의료사업에 투자하는  
 미쓰비시케미칼 ”

미쓰비시케미칼은 2013~2017년 기간 동안 글로벌 매출액 기준 상위 10대 화학 기업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인수 거래를 진행했는데(21건), 주로 전방산업 수요변화에 맞춘 스페셜티 제품과 생명과학 분야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미쓰비시케미칼의 바이오 분야 인수 동향을 보면, 2014년 유전자 및 염색체 분석, 임상시험 및 식품위생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LSI 메디앙스(LSI Medience)를 인수했으며, 2015에는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클리오(Clio)의 인수를 완료했다. 또한 2016년에도 제약 및 기능성 식품 캡슐 제조업체인 제닉스(Genix-Industria Farmaceutica)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건의 바이오 기업 인수를 꾸준히 진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 » 2013~2017년 미쓰비시케미칼의 기업 인수 현황

공시 연도	피인수 기업명	피인수 기업 국가	진행 상황	업종	비고(사업영역 등)
2017	MGC Pure Chemicals America Inc / Mitsubishi Corp	일본	완료	화학	웨이퍼 세정용 순수 과산화수소, 수산화암모늄
2017	Gemini Composites LLC	미국	완료	자동차	자동차용 탄소섬유
2016	Nippon Kasei Chemical Co Ltd	일본	완료	화학	질산 칼륨 및 무기화학 물질
2016	Nippon Synthetic Chemical Industry Co Ltd	일본	완료	화학	정밀 화학 물질
2016	Piper Plastics Inc	미국	진행	화학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2016	Genix-Industria Farmaceutica Ltda	브라질	완료	제약·바이오	제약 및 기능성 식품 캡슐 제조
2015	Eisai Food & Chemical Co Ltd	일본	완료	화학	제약 및 화장품 원료, 식품 성분 및 식품 첨가물, 보충제 및 영양제
2015	Clio KK	일본	완료	제약·바이오	재생의료, 줄기세포 연구
2015	Dia Packaging Materials Co Ltd / Mitsubishi Plastics Inc	일본	진행	화학	화학물질 포장, 운송
2015	JSP Corp	일본	완료	화학	고무, 플라스틱
2014	Wethje Holding GmbH	독일	완료	화학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2014	Taiyo Nippon Sanso Corp	일본	완료	화학	질소 및 산업용 가스
2014	LSI Medience Corp	일본	완료	제약·바이오	임상시험, 유전자 및 염색체 분석, 식품위생
2013	Chuo Rika Kogyo Corp	일본	완료	화학	폴리비닐아세테이트, 아크릴수지, 폴리올레핀
2013	Wellthy Corp	일본	완료	자원·에너지	수처리, 수질개선
2013	Compounds business units / Tessenderlo Group	프랑스	완료	화학	엘라스토머, PVC 화합물
2013	TCT Polska Sp zoo / Tessenderlo Group	폴란드	완료	화학	폴리머 소재
2013	Aquamit BV	네덜란드	완료	화학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2013	Comusa LLC, JNC Polyfine Co Ltd, JNC America Inc PPCP Sales Unit / Chisso Corp	미국	완료	화학	열가소성 고무
2013	Comtrex LLC	미국	완료	화학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2013	Resin compound business / Tessenderlo Group	벨기에	완료	화학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및 염화 비닐 컴파운드

Source : Bloomberg, 국내외 언론기사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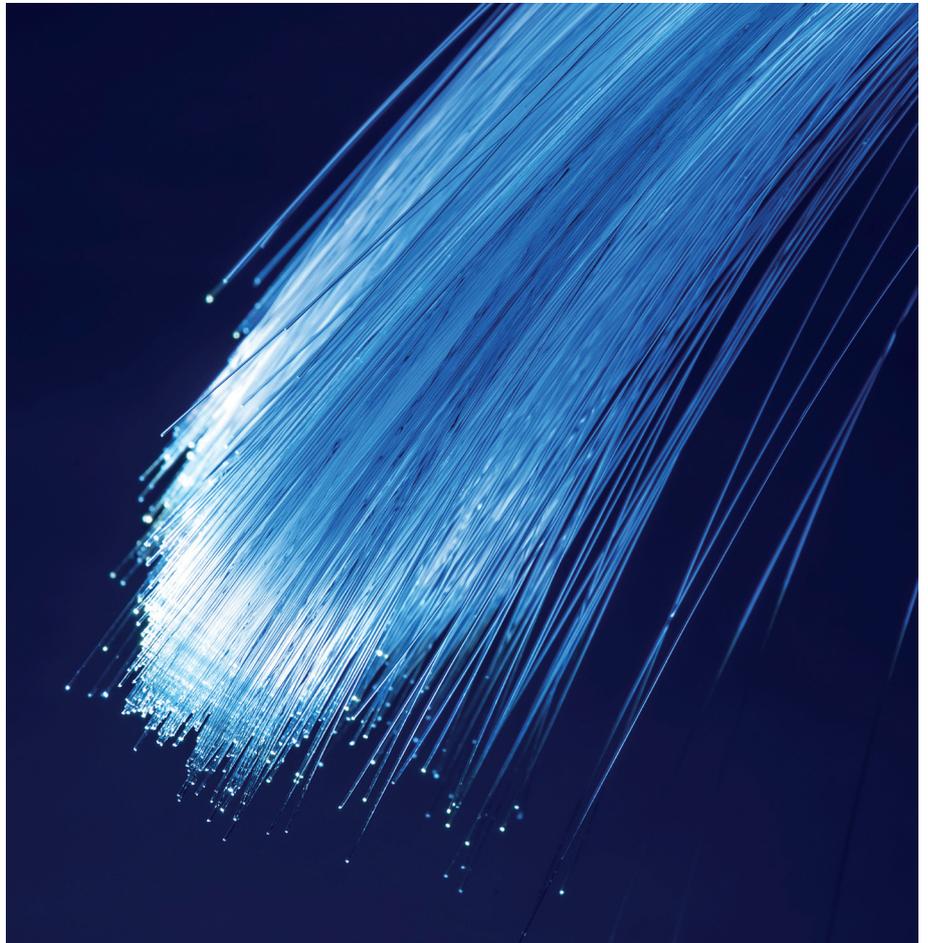
Note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  
엘라스토머, 탄소 섬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스페셜티 사업 확장 ”

스페셜티 분야에서 미쓰비시케미칼의 인수거래 동향을 보면 엘라스토머(Elastomer)와 고강도, 경량화 소재에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엘라스토머(Elastomer)는 고부가 폴리에틸렌 제품 중의 하나로 화학제품 중 가장 비중이 큰 합성수지인 폴리에틸렌을 대체할만한 차세대 제품으로 각광 받고 있다. 기존 플라스틱처럼 가공이 쉬우면서 고무처럼 탄성이 뛰어나 자동차 소재부터 전선케이블 피복재, 운동화 충격흡수용 밀창, 기능성 필름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미쓰비시케미칼은 2013년 콤트렉스(Comtrex)를 비롯하여 엘라스토머 제조 관련 기업들과 사업부문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미쓰비시케미칼은 고강도, 경량화 소재 부문 강화를 위해 2013년 네덜란드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업체 아쿠아미트(Aquamit) 인수를 시작으로 2016년에도 미국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업체 파이프 플라스틱(Piper Plastic)의 인수를 발표했다. 또한 미쓰비시케미칼은 2014년 독일의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CFRP) 제조 기업인 Wethje를 인수했는데, 이는 강력한 환경 규제로 차량 경량화 바람이 불고 있는 유럽 자동차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에도 미쓰비시케미칼은 미국의 탄소섬유 컴포지트 부품 설계/제작 회사인 제미니컴포지트(Gemini Composites)을 인수했는데, 해당 인수로 미쓰비시케미칼은 자동차 시트 성형 컴파운드(SMC) 부품 개발 능력 향상은 물론 부품 설계 중심의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다우듀폰(DowDuPont), 농화학 및 소재과학 기업으로 사업 재편

“  
다우듀폰은 농업,  
소재과학, 특수 제품의  
3개 사업부로 분리  
”

1897년 설립된 다우케미칼과 1802년 설립된 듀폰의 합병은 바이엘의 몬산토 인수와 더불어 최근 5년간 화학 업계의 최대 화두였다. 다우케미칼과 듀폰은 2015년 합병 계획 발표 후 2017년 합병이 완료되었다. 합병 기업은 ‘다우듀폰’이라는 명칭의 지주 회사로 운영되며 농업화학·종자(Agriculture), 소재과학(Material Science), 특수제품(Specialty Product)의 세 가지 사업분야를 갖게 된다.

다우케미칼과 듀폰의 2013~2017년 기간 동안 M&A 동향을 살펴보면 2017년 합병이 완료되기 전까지 특히 농업 및 그린바이오 분야에서 꾸준히 기업 인수를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4년 다우케미칼은 호주와 브라질의 종자 개량 기업들을 인수했으며, 2015년 듀폰도 미생물군 유전체 발굴에 전문 역량을 지닌 택손 바이오사이언스(Taxon Biosciences)를 인수해 바이오 작물보호제 사업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듀폰은 같은 해 세계적 수준의 효소 발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다이아딕(Dyadic International)으로부터 고품질이 발현 기술인 Dyadic's C1 플랫폼을 포함한 기술 자산을 인수했다.

한편 2017년 다우듀폰 합병법인은 듀폰의 작물보호사업부문 중 일부를 FMC에 매각하여 반독점 이슈를 일정 부분 해소한 동시에, FMC사의 Omega-3 비즈니스를 제외한 건강 및 영양 사업(FMC H&N)을 인수하여 지속가능한 바이오 기반 식품 소재 공급 업체로서의 입지를 갖춰나가고 있다. 동 건은 급성장하고 있는 제약 부형제 영역까지 그 역량을 확장해 나가는 것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 2013~2017년 다우듀폰의 기업 인수 현황

공시 연도	인수 기업명	피인수 기업명	피인수 기업 국가	진행 상황	업종	비고(사업영역 등)
2017	다우듀폰	FMC Chemical Thailand Co Ltd / FMC Corp	태국	완료	화학	화학 물질 생산 및 유통
2017	다우듀폰	Health and nutrition segment in Brazil / FMC Corp	브라질	진행	화학	건강 및 영양, 식품첨가물
2015	다우케미칼	E. I. du Pont de Nemours & Co	미국	완료	화학	종합화학
2015	다우케미칼	Dow Corning Corp / Corning Inc	미국	완료	화학	실리콘 화학 제품
2015	다우케미칼	Aniline Facility / Chemours Co	미국	완료	화학	아닐린 공장
2015	다우케미칼	Santa Vitoria Acucar e Alcool Ltda / Mitsui & Co Ltd	브라질	진행	화학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에틸렌 등 바이오 화학
2015	듀폰	Industrial Technology Business / Dyadic International Inc	미국	완료	기계	효소 제품 생산 기술
2015	듀폰	Taxon Biosciences Inc	미국	완료	화학	미생물 유전체학 제품
2014	다우케미칼	Univation Technologies	미국	완료	화학	폴리에틸렌 생산 촉매
2014	다우케미칼	Coodetec's seeds business / Cooperativa Central de Pesquisa Agriola	브라질	완료	화학	종자 사업
2014	다우케미칼	Advantage Wheats Pty Ltd	호주	완료	농업	밀 품종 개발

Source : Bloomberg, 국내외 언론기사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Note 2 : 다우케미칼과 듀폰은 2017년 합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전 M&A 거래는 다우케미칼과 듀폰으로 분리해서 제시

## 엑슨모빌(ExxonMobil), 자원 확보 재개와 천연가스·석유화학사업 강화

엑슨모빌은 매출액 기준 세계 6위권의 화학 기업인 동시에 원유의 탐사, 생산, 정제, 공급, 운송, 판매 등 석유 산업 전반에 관여하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기업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엑슨모빌의 주요 딜들은 주로 자원 탐사 및 생산에 맞춰져 있다.

엑슨모빌의 2013~2017년 기간 동안 M&A 동향을 살펴보면, 2013년에 원유, 천연가스, 오일 샌드, 셰일가스 등의 유전 및 가스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2014년 유가가 급락하면서 2014~2015년 기간 동안 별도의 딜을 진행하지 않다가 2016년 새로운 가스전 확보를 위해 천연가스 탐사·개발업체 인터오일(InterOil)을 인수한다. 인터오일은 파푸아 뉴기니에 엘크-앤털로프 가스전 등 총 1만 6,187km<sup>2</sup> 규모의 가스전 개발권 6개를 보유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는 양질의 천연가스 매장지로 인터오일 인수는 향후 엑슨모빌의 LNG 인프라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후 2017년 들어 엑슨모빌은 캐나다 트릴로지에너지(Trilogy Energy)로부터 천연가스 생산 시설을 인수하는 등 천연가스 사업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석유화학과 관련된 인수거래를 보면 2017년 싱가포르의 정제 및 석유화학공장 주롱아로마틱스(Jurong Aromatics)를 인수했는데, 엑슨모빌은 동 건으로 인해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방향족 화합물의 생산량이 연간 350만 톤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2017년 유가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엑슨모빌은 스타토일로부터 브라질의 해양 유전 개발권을 인수하는 등 최근 유전 확보를 위한 투자를 재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 “ 천연가스와 석유 화학 제품 생산 확대를 위한 시설 매입 ”

#### 》 2013~2017년 엑슨모빌의 기업 인수 현황

공시 연도	피인수 기업명	피인수 기업 국가	진행상황	업종	비고(사업영역 등)
2017	Block BM-S-8 / Statoil ASA	브라질	진행	자원·에너지	원유 탐사 및 생산
2017	Crude oil terminal / Wink / Genesis Energy LP	미국	완료	자원·에너지	원유 터미널
2017	SEAL-M-351 and SEAL-M-428 blocks / QGEP Participacoes SA	브라질	진행	자원·에너지	원유 탐사 및 생산
2017	Refining & Petrochemical Plant / Jurong Aromatics Corp Pte Ltd	싱가포르	완료	화학	정제 및 파라자일렌 등 석유화학
2017	Certain Assets / Trilogy Energy Corp	캐나다	완료	부동산	천연가스 생산 시설
2016	InterOil Corp	싱가포르	완료	자원·에너지	파푸아 뉴기니 천연가스전
2013	POT-M-475 block / Oleo e Gas Participacoes SA	브라질	완료	자원·에너지	원유 탐사 및 생산
2013	Clyden Oil Sands Leasehold / ConocoPhillips	캐나다	완료	자원·에너지	오일샌드 탐사 및 생산
2013	Liberia Block 13 / Canadian Overseas Petroleum Ltd	라이베리아	완료	자원·에너지	원유 및 가스 탐사 및 생산
2013	Woodford Shale wells / BNK Petroleum Inc	미국	완료	자원·에너지	셰일가스 탐사 및 생산

Source : Bloomberg, 국내의 언론기사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 시노펙(Sinopec), 해외 정유사업 확대 및 석유화학사업 강화

“  
남아공 정유사업  
진출 및 중국 메이저  
석유화학 업체 인수”

중국의 국영석유기업(National Oil Company, NOC)이자 C&EN 기준 2016년 화학 업계 매출 규모 글로벌 3위를 기록한 시노펙은 엑스모빌과 마찬가지로 저유가 시대가 도래하기 전인 2013년까지 유전 및 가스전 지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2013년 2월 미국 에너지 기업 체사피크에너지(Chesapeake Energy)의 미시시피 라임가스(세일가스 일종) 광구에 대한 지분 50%를 인수했다. 이는 시노펙이 2012년 1월 성사시킨 미국 에너지 기업 데번에너지(Devon Energy)의 미시시피강 연안 석유·가스 개발권을 인수한 데 이어 두번째로 미국 에너지 기업의 지분을 인수한 사례이다. 또한 시노펙은 2013년 마라톤 오일(Marathon Oil)로부터 앙골라의 해상 유전 및 가스전을 연이어 인수했다.

시노펙은 저유가가 본격화된 2014~2016년 기간 동안 대규모 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7년 들어 다시 본격적으로 해외 인수합병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시노펙은 2017년 3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유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세부적으로 미국 셰브론(Chevron)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업법인 지분 75%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인수대상 자산은 일일 생산량 10만 배럴 규모 정유공장(케이프타운), 윤활유 공장(더반), 남아공 및 보츠와나 소재 820개 주유소 및 기타 저장시설 등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노펙은 M&A를 통해 범용석유화학 부문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시노펙은 올레핀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 메이저 석유화학 업체인 상하이세코의 지분 50%를 BP로부터 매입했다. 상하이세코 인수전에는 시노펙과 함께 우리나라의 SK종합화학과 이네오스가 최종 인수자 후보에 올랐으나, 시노펙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최종 인수에 성공했다.



### » 2013~2017년 시노펙의 기업 인수 현황

공시 연도	피인수 기업명	피인수 기업 국가	진행상황	업종	비고(사업영역 등)
2017	Shanghai Secco Petrochemical Co Ltd / BP PLC	중국	진행	화학	올레핀계 석유화학제품
2017	Chevron South Africa Pty Ltd / Chevron Corp	미국	진행	화학	정유 및 윤활유 제조 시설
2014	Sinopec Century Bright Capital Investment Netherlands / China Petrochemical Corp	네덜란드	완료	금융	그룹 내 자금 대출 및 결제서비스 제공
2014	Substantial assets / Sinopec Oilfield Service Corp	중국	완료	자원·에너지	석유 엔지니어링 및 기술 서비스
2013	Block 31 / Angola / Marathon Oil Corp	앙골라	완료	자원·에너지	앙골라 해상 유전 및 가스전
2013	Chesapeake's net oil and natural gas leasehold acres / Chesapeake Energy Corp	미국	완료	자원·에너지	세일가스 탐사 및 생산

Source : Bloomberg, 국내외 언론기사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 인도 자동차 시장의 성장성에 주목한 리온델바젤 ”

## 리온델바젤(LyondellBasel), 차량용 화학 소재와 바이오 연료 주목

리온델바젤은 M&A를 통해 석유화학 제품 생산능력을 확장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에는 인도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리온델바젤이 인도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이유는 인도에서 전방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리온델바젤은 2015년에만 인도의 폴리프로필렌 화합물 제조업체인 SJS Plastiblends와 Zylog Plastalloys를 연이어 인수했다. 폴리프로필렌은 자동차 및 가전제품 플라스틱 소재로 널리 활용되는 대표적인 범용 플라스틱 중 하나이다. 리온델바젤은 해당 인수를 통해 인도 내에서만 연간 4만 4,000톤에 달하는 폴리프로필렌 생산량을 선보일 것이라 발표했으며, 인도내에 존재한 자동차 제작산업 분야의 고객층을 두 배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리온델바젤은 브라질의 최대 화학 기업인 브라스캠(Braskem) 인수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스캠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에탄올을 원료로 한 폴리에틸렌의 가장 큰 생산자다. 리온델바젤은 브라스캠의 바이오 화학 기술이 자사의 생산 노하우와 결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 2013~2017년 리온델바젤의 기업 인수 현황

공시 연도	피인수 기업명	피인수 기업 국가	진행 상황	업종	비고 (사업영역 등)
2017	Braskem SA	브라질	제안	화학	폴리에틸렌 등
2015	Polypropylene compounding assets / Zylog Plast alloys Pvt Ltd	인도	완료	화학	폴리프로필렌
2015	SJS Plastiblends Pvt Ltd	인도	완료	화학	폴리프로필렌

Source : Bloomberg, 국내외 언론기사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  
 섬유 강화 복합  
 소재를 통한 경량화 시장  
 확대 및 인도 비료 시장  
 진출 모색 ”

**사빅(SABIC), 경량화 소재 사업 확대 및 농화학 분야 진출 모색**

사우디의 종합석유화학 기업인 사빅의 경우 2013~2015년 기간 동안 별도의 인수거래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M&A를 다소 활발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2016년 네덜란드의 Fibre Reinforced Thermoplastics을 인수했는데, 동 기업은 섬유 강화 단방향성 테이프 제작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테이프는 탄소섬유나 유리를 폴리머와 빠르고 정교하게 접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빅은 섬유강화 복합재료를 활용해 경량화 시장에서의 사업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들어 사빅은 범용석유화학 제품 생산 기업 사우디페트로케미칼(Saudi Petrochemical, SADAF)의 지분 50%를 로얄더치셸로 부터 인수했다. 사우디페트로케미칼은 연 400만 톤이 넘는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6개의 석유화학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에틸렌, 에탄올 및 스티렌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사빅은 사우디페트로케미칼을 다른 계열사와 통합해 범용 시설 투자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사빅은 M&A를 통해 신흥시장의 농화학 분야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사빅은 인도의 그라심(Grasim)사의 비료 사업분야 인수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 건이 성사되면 사빅은 기존 강점인 석유화학 분야에서 농화학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13~2017년 사빅의 기업 인수 현황

공시 연도	피인수 기업명	피인수 기업 국가	진행 상황	업종	비고 (사업영역 등)
2017	Grasim Fertiliser Business / Grasim Industries Ltd	인도	제안	화학	비료
2017	Saudi Petrochemical Co / Royal Dutch Shell PLC	사우디	완료	화학	에틸렌, 에탄올, 스티렌, 가성소다 등 석유화학 제품
2016	Fibre Reinforced Thermoplastics BV	네덜란드	완료	화학	섬유 강화 단방향성 테이프

Source : Bloomberg, 국내외 언론기사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 사례로 본 화학 산업 M&A 트렌드

지금까지 화학 산업의 최근 M&A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글로벌 화학 기업들은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의 틀을 공유하면서도 자사의 강점과 약점,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 가치에 따라 M&A 전략 방향에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를 통해 본 글로벌 화학 산업의 트렌드를 유형화 하면 ① 비석유화학 분야의 규모화 및 과점화, ② M&A를 활용한 사업구조의 재편, ③ 경량화 및 전자 소재 사업 확대, ④ 탈석유화 바람과 화학원료의 다변화, ⑤ 석유메이저들의 석유화학 사업 강화로 구분할 수 있다.

### 》 M&A를 통한 글로벌 화학 기업의 전략 방향

바스프(BASF)	농화학 · 건설소재 강화, 전자 · 3D 프린팅 사업 진출
다우듀폰(DowDuPont)	농화학 및 소재과학 기업으로 사업 재편
시노펙(Sinopec)	해외 정유사업 확대 및 석유화학사업 강화
사빅(SABIC)	경량화 소재 사업 확대 및 농화학 분야 진출 모색
엑슨모빌(ExxonMobil)	자원 확보 재개와 천연가스 및 석유화학사업 강화
리온델바젤(LyondellBasell)	차량용 화학소재와 바이오 연료 주목
이네오스(Ineos)	세일가스와 풍력 등 비전통 에너지원에 주목
미쓰비시케미칼(Mitsubishi Chemical)	스페셜티 제품과 생명과학 분야 강화

Source : 삼정KPMG 경제연구원

#### ① 비석유화학 분야의 규모화 및 과점화

최근 화학 산업의 글로벌 메가 딜을 살펴보면 비정유 및 비석유화학 분야에서 뚜렷하게 발생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규모화를 통해 성장해 왔던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의 트렌드가 이제는 비석유화학 분야로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3~2017년 거래액 기준 1~3위에 해당하는 바이엘의 몬산토 인수, 다우듀폰의 합병, 쉼치아나의 신젠타 인수는 모두 미래 종자 시장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거래액 4위의 린데와 프렉스에어의 합병도 산업용 가스 시장의 과점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거래액 5위에 해당하는 포타시와 아그리움의 합병도 비료 시장의 지배력 강화와 관련된 딜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거래액 6위에 해당하는 달인 머크의 시그마-알드리치 인수도 생명과학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아나가기 위한 투자로 볼 수 있다.

즉 화학 산업의 규모화, 거대화의 중심이 기존 정유 및 석유화학에서 농화학, 산업용 가스, 제약 및 생명과학 등 비석유화학 분야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M&A를 통한 상기 업종의 과점화 추세는 미래 화학 시장 경쟁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결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화학 산업의 새로운 경쟁은 해당 분야에서 발생할 것임을 암시한다.

“  
농업, 산업용 가스,  
생명과학 분야 등  
비석유분야에서  
경쟁구도 재편 ”

“

바스프, 다우케미칼,  
듀폰 등 장수 화학  
기업들은 M&A를  
사업재편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 ”

## ② M&A를 사업재편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화학 기업들

글로벌 화학 기업들은 M&A를 단순히 기업 성장의 수단으로만 활용하지는 않는다. 특히 장수 기업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150년 역사의 바스프, 120년 역사의 다우케미칼, 210년 역사의 듀폰은 M&A를 성장의 수단뿐만이 아닌 비효율적 사업부문을 정리하는 사업구조 재편 수단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2013~2017년 M&A에서도 확인된다. 바스프는 앞서 언급했듯이 동 기간 16건의 크고 작은 다양한 기업 인수를 진행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동 기간 33건의 매각 거래도 진행했다. 바스프는 매 5년 단위로 향후 10년의 사업 전망에 기초하여 전체 사업을 미래 예상 수익률에 따라 Green(집중 육성), Yellow(경쟁력 유지), Brown(투자 제한), Red(사업 철수)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Green으로 분류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사 차원의 지원 하에 M&A 등 과감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Yellow 사업은 확장보다는 시장 지위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리고 수익성이 기준 이하가 된 Brown 사업은 추가 투자를 중지하고, Red 사업은 즉각적으로 사업에서 철수하여 유동성을 확보한다. 단순하지만 명확한 바스프의 전략은 바스프가 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기에 수많은 인수 및 매각거래를 진행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러한 선제적 사업구조 재편으로 바스프는 사업구조 고도화에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 다우듀폰으로 합병을 완료한 다우케미칼과 듀폰 역시 2013~2017년 기간 동안 각각 19건, 22건의 다양한 매각 거래를 진행했다. 양사 합병에 따른 반독점 규제에 의한 매각 거래를 제외하더라도 두 기업이 사업재편을 위해 상당히 많은 매각 거래를 진행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실제 두 기업이 합병을 합의한 2015년 12월 이전, 즉 2013~2015년 기간 동안만의 매각 거래만 보더라도 다우케미칼이 13건, 듀폰이 15건에 이른다. 이러한 매각 거래를 통한 사업재편은 두 기업이 종자, 소재과학, 특수제품 기업으로 변모하는 데 활용되었고, 결국 다우듀폰이라는 초거대 기업으로 재탄생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전방산업 수요변화에 따른 경량화 및 전자 소재 사업 확대

농업, 바이오 및 생명과학 분야로 화학 산업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방산업 수요 변화에 따른 스페셜티 소재는 화학 기업들에게 고부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 화학 기업들은 스페셜티 소재 기업 인수를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3~2017년 주요 화학 기업들의 인수사례를 보면 고강도·경량화 소재, 전자 소재 등이 주목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쓰비시케미칼은 탄소섬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여 전방산업의 경량화 트렌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빅도 경량화 복합소재 기술에 투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바스프와 미쓰비시케미칼은 웨이퍼나 디스플레이 광학 소재 등에 대한 투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글로벌 환경규제와  
4차 산업혁명 등  
전방산업 수요 변화로  
주목받는 경량화 및  
전자 소재 ”



“

세일가스, 바이오  
연료 등 차세대  
화학연료를 준비하는  
화학 기업들 ”

#### ④ 화학업계에 부는 탈석유화 바람과 화학원료의 다변화

2013~2017년 주요 화학 기업들의 인수 사례의 특징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탈석유화와 화학원료의 다변화 조짐이 점차 가시화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이네오스는 기존의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북미 에너지 기업들의 전유물이었던 셰일가스 등 비전통 에너지원 확보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셰일가스가 양산되기 시작한 이후 가스에서 분리한 에탄을 분해해 에틸렌을 얻는 방법이 원유에서 추출되는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을 얻는 것보다 원가 경쟁력 면에서 앞선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네오스뿐만 아니라 바스프도 2015년 셰일 가스전을 인수하여 본격적인 셰일자원 탐사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의 시노펙도 미국 지역의 셰일 가스 지분을 인수하여 전통적 석유화학원료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리온델바젤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에탄올에 관심을 보이며 관련 기업인 브라스کم 인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 연료는 아직까지 경제성 측면에서 기존 원유를 앞서는 못하지만 화석연료를 대체할 차세대 연료로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 ⑤ 석유메이저들의 석유화학 강화

석유 탐사 및 생산, 정유 등 에너지 사업을 통해 성장한 석유메이저들은 최근 들어 M&A를 통해 석유화학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이후 저유가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전기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등 기존 석유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비교적 석유와 연계성이 높은 석유화학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본문에서 사례로 언급한 화학 기업들 중 국제석유기업(IOC)인 엑스모빌은 방향족 화합물 생산량 증가를 위해 2017년 싱가포르의 석유화학공장 주몽아로마티스를 인수했고, 국영석유기업(NOC)인 시노펙도 2017년 올레핀계 석유화학제품 생산 기업인 상하이세코를 인수했다. 본문에서 언급한 두 기업뿐만 아니라 사우디의 국영석유기업 아람코(Saudi Aramco) 등 세계 최대 석유기업들도 석유화학분야를 확대하고 있어, 향후 범용 석유화학제품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석유메이저의  
석유화학사업 확대로  
범용제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 ”





# Business Contacts

## 화학 산업 및 M&A 전문팀

### Audit

#### 김진태

전무  
T. (02)2112-0309  
E. jintaekim@kr.kpmg.com

#### 장석조

전무  
T. (02)2112-0877  
E. seokjojang@kr.kpmg.com

#### 정성호

전무  
T. (02)2112-0866  
E. sunghocheong@kr.kpmg.com

#### 최세홍

전무  
T. (02)2112-7628  
E. sehongchoi@kr.kpmg.com

#### 배정규

상무  
T. (02)2112-0615  
E. jbae@kr.kpmg.com

#### 김현중

상무  
T. (02)2112-7632  
E. hyunjoongkim@kr.kpmg.com

#### 김재연

상무  
T. (02)2112-0206  
E. jaeyeonkim@kr.kpmg.com

### Tax

#### 오상범

전무  
T. (02)2112-0721  
E. sangbumoh@kr.kpmg.com

#### 이찬기

전무  
T. (02)2112-0913  
E. changilee@kr.kpmg.com

#### 이관범

전무  
T. (02)2112-0917  
E. kwanbumlee@kr.kpmg.com

#### 이성태

전무  
T. (02)2112-0950  
E. seongtaelee@kr.kpmg.com

#### 나석환

상무  
T. (02)2112-0953  
E. seokhwanna@kr.kpmg.com

### Deal Advisory

#### 하병제

부대표  
T. (02)2112-0715  
E. bha@kr.kpmg.com

#### 윤창규

전무  
T. (02)2112-0995  
E. changgyuyoon@kr.kpmg.com

#### 김이동

상무  
T. (02)2112-0343  
E. yidongkim@kr.kpmg.com

#### 박성원

상무  
T. (02)2112-7090  
E. sungwonpark@kr.kpmg.com

#### 고병준

상무  
T. (02)2112-0742  
E. bgoh@kr.kpmg.com

### Advisory

#### 이동석

전무  
T. (02)2112-7954  
E. dongseoklee@kr.kpmg.com

#### 윤권현

상무  
T. (02)2112-7495  
E. kyoona@kr.kpmg.com

[kpmg.com/kr](http://kpmg.com/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 2018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